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지원금 상한제 일몰



가계통신비 인하

올해 통신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후 거센 요금 인하 압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고,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이 확대됐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상한제 조항이 예정대로 일몰됐다. 아울러 이동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등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대신 현행 지급제의 활성화 방안을 내놴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현실성 감안해 빠져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요금 체계상 '기본료' 항목은 2G와 3G 서비스에만 있으며 LTE 서비스는 정액요금제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하순과 6월 초순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까지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금 1만1천원을 모든 사용자에 대해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국정위는 미래부가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000원 일괄인하'는 이동통신 요금 체계상 당장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동안 업무 보고 정취를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미래부가 '보편요금제'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25%로 상향조정' 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하자 6월 중순 이를 수용했다.

당초 공약에 포함됐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전체 사용자에 적용되지 않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1만1천원씩 늘리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25% 요금할인 9월 15일부터 시행...이전 대체로

미래부에서 이름을 바꾼 과학기술



'기본료 폐지' 없던일로
저소득층·소외계층은 감면액 1만1천원씩 늘려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프리미엄 폰 구입자 90% 이상 지원금 대신 선택
지원금 상한제 일몰
프리미엄 폰 10만원대 초반 '작년과 비슷'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가동
음성 210분·데이터 1.3GB '보편요금제' 추진

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이동사들과 협의를 착수했다. 이동사들은 처음에는 '소송 불사'를 거론하는 등 격렬히 반대했으나, 결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선택약정을 체결하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선택약정할인제 도입 당시인 2014년 10월에는 할인율이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높아진 데 이어 다시 5%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이동사들은 신규 약정 체결자 외에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할인율을 적용받아 계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도 함께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사기업인 이동3사를 무리하게 압박하며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선택약정 할인을 상향은 그 효과가 상당히 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8·X 등 올해 하반기에 나온 신제품 프리미엄 폰을 산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택했다.

25% 할인 가입자 수는 이달 중순 기준으로 약 545만명이며, 기존 20% 약정이 끝나는 경우가 늘면서 내년 말께면 그 수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지원금 상한제 일몰...당장 영향은 없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던 '지원금 상한제'는 예정대로 일몰됐다. 일몰 이전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인 단말기에 실리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꽤 많았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동사들이 지원금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상한제 일몰 후인 올해 11월과 12월에도 기존 상한선을 뛰어넘는 공식 지원금이 실리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신형 프리미엄 폰은 지원금이 대부분 10만원대 초반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프리미엄 폰

구매자들 거의 모두가 25% 할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가동...통신비 부담 더 줄까

11월에는 정부, 이동업계, 단말기 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유도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협의회는 이달 15일까지 4차례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했으며, 일부 국회의원이 제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즉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법으로 아예 금지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놴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면서 '보편요금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런 요금제를 내내 출시하도록 해 연세차 요금 인하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와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협의회에 참가중인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올해의 과학뉴스 1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0선 선정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올해 주목받은 과학기술 이슈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사진) 공론화 등 10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총은 3차례의 선정위원회 심의와 총 6396명의 과학기술인·일반인 투표를 반영해 과학계 소식(과학기술 이슈) 4건과 국내 연구성과 6건을 올해의 과학뉴스로 뽑았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과학기술 이슈 4건은 과학기술인 대상 조사와 일반인 조사에서 똑같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이슈 부문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가 1위로 선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원전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건설 재개'로 결론을 지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부상'이 과학기술 이슈 부문 2위에 선정됐으며 실종체 달걀 및 시판 생리대 발암성 논란 등으로 불거진 '케미포비아'(화학물질공포증)가 3위로 꼽혔다.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과학기술 이슈 부문 4위에 선정됐다.

연구성과 부문 뉴스 1위로는 '유전자 가위'로 배아에서 유전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교정한 연구 결과가 선정됐다.

이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팀과 슈크르트 미탈리포르프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OHSU) 교수팀의 공동 연구성과로, 지난 8월 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렸다.

아울러 연구성과 부문 뉴스 2~6위로는 ▲1000시간 사용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 개발(석상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팀) ▲알츠하이머병 예측하는 혈액검사법 개발(목인희·이동영 서울대 의대 교수팀)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 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한울바이오파마, 셀트리온 등)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자동차 트램(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기 만드는 나노 실 개발(김선정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팀)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과총은 "이번 선정 결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분야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정책 판단과 대응 전략 수립, 국회의 입법 활동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